

창조적 아이디어로 도시 잠재력을 깨워라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

<1>프롤로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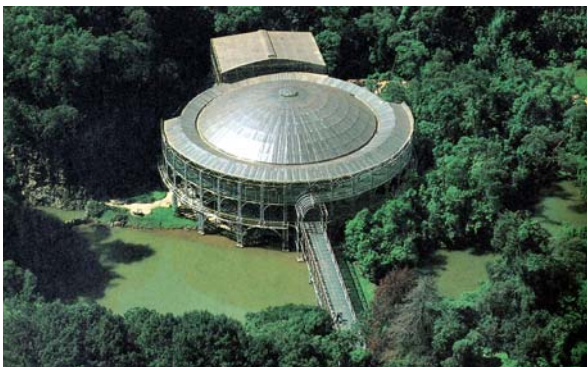
도시 간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동시에 부각되고 있는 것이 '창조도시론'이다. 창조성이 도시 간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최대의 가치가 된 것이다. 광주는 물론 각 국가의 인구 100만 이상 도시들이 세계적인 이벤트 유치에 나서고,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발굴·적용해 각 분야에서 나름의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광주시 역시 민선 5기 들어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그 경쟁에 뛰어들었다. 그러나 여전히 창조도시라는 개념은 추상적이며, 창조성이 반드시 도시 미래를 결정하는 중요요소라고 하기에는 실패의 가능성이 너무 크다. 따라서 광주에 앞서 창조도시를 꿈꾸고 추진하고 있는 도시들의 시행착오를 살피는 것은 물론 광주에 적용가능한 콘셉트를 검토하는 것은 지금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일 것이다.

광주일보의 각계 전문가의 조언, 창조도시 관련 서적 및 인체물, 그 외 정보 등을 통해 세계 곳곳의 창조도시 10곳을 선정했다. 이들 도시의 '창조의 현장'을 직접 찾아 창조적인 인재·시스템·도시 분위기·성과와 함께 등을 생생히 전할 예정이다.



요코하마의 아카렌가 창고. 1905년 지어진 이 창고는 쓸모가 없어 철거될 처지였으나 시가 이를 매입해 문화·상업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쿠리치바의 대표적인 랜드마크인 오폐라 데 아라에 극장.



일본 요코하마의 구도심 내 옛 은행건물.



브라질 쿠리치바의 원통형 정류장. 버스를 통해 도시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쿠리치바는 일약 '대안도시'로 세계 각 도시의 모델이 됐다. <박용남 저 '꿈의 도시 꾸리치바' 참조>

#아카렌가(赤レンガ, 붉은 벽돌)창고는 1905년 지은 부두 건축물로 그 용도를 다해 철거 위기에 있었다. 요코하마시는 시민들에게 친숙한 이 창고 2동을 귀중한 역사적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1992년 민간소유자에게 매입한 뒤 '항구의 변화함과 문화를 창조하는 공간'으로 탈바꿈시켰다.

재활용품 모아오면 과일로 교환 철거위기 창고를 대표 관광지로

지난 2002년 4월12일 창고 1곳은 문화공간, 또 다른 1곳은 상업공간으로 내부를 리모델링해 오픈했다. 이후 젊은이들이 찾는 도시의 대표적인 공간이 됐으며, 관광자원으로도 높은 인기를 누리고 있다.

요코하마는 광주의 푸른길공원과 같이 1900년 설치된 철로를 산책로로 조성하기도 했다. 40년 전인 지난 1971년 '살고 싶은 도시'라는 슬로건 아래 도시디자인팀을 신설, 일제강점기 ▲쾌적한 보행 공간 ▲자연미와 인공미의 조화 ▲시민 의견수렴 등에 바탕을 둔 정책을 실시해오고 있다.

#2000년대 들어 익숙한 도시가 왜 버린

브라질 쿠리치바(Curitiba)는 '녹색교향'이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재활용품 4kg을 모아오면 시장 도매시장에서 거래되고 남은 야채나 과일 1kg 혹은 버스 토큰으로 바꿔주는 이 제도를 통해 쿠리치바는 쓰레기 감량과 지역 농산물의 소비 진작이라는 2마리 토끼를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 외에도 쿠리치바는 1968년 승용차의 시내 진입을 막고 재정부담이 큰 지하철이 아닌 간선급행버스체계(BRT, Bus Rapid Transit)를 통해 도심 교통문제를 해결하면서 세계 각 도시의 모델이 되기도 했다. 이 외에도 근대건축물의 활용을 통한 도심 재생, 시민들의 참여를 기반으로 한 각종 이벤트 등을 통해 2류 도시에 불과했던 쿠리치바는 단숨에 모델도시의 반열에 오르게 됐다.

1980년대까지 국가 간 경쟁에서 1990년대 세계도시, 즉 뉴욕·런던·파리·도쿄·서울·홍콩 등의 경쟁에 이어 2000년대 들어서는 인구 100만명 이상의 중핵도시들 간 경쟁 구도가 고착되고 있다.

중핵도시들은 세계도시에 비해 경제·문화·기반시설 등의 측면에서 뒤지지만 자생

'시민이 행복한 창조도시' 光州 세계 10개 도시 경쟁력 배운다

력을 갖고 언제든 각 분야에서 세계도시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고 있다.

그 잠재력을 일깨우는 것이 다른 도시에서는 미처 발굴·적용하지 못했던 '창조적인 아이디어'일 것이다. 물론 이러한 아이디어는 실패의 가능성이 크며 아이디어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창조적인 아이디어를 생산해내는 ▲창조적인 인재, 그들의 아이디어를 체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창조적인 도시운영 시스템, 시스템을 구축하고 강력하게 추진하는 ▲창조적인 리더는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창조도시의 공통점이 되고 있다. 창조적인 인재가 자리하기 위해서는 좋은 일자리와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 및 교육환경이 뒤따라야 하고, 창조적인 도시운영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이웃에 대한 배려, 지방자치단체 및 공무원의 신속한 대처 등이 필수적이다.

창조적인 리더는 이러한 기반 아래 도시 운영의 우선순위를 책정하고, 철저히 의견수렴을 하되 그것을 통해 결정된 사안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본 요코하마와 브라질 쿠리치바 역시 이러한 공통점이 있으며, 최소 10년 이상 지속적이며 일관적으로 정책 및 사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일보는 이병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장, 송효상 광주디자인비엔날레 총감독, 김광우 전남대 지역개발학과 교수, 박용남 지속가능연구센터장 등을 이번 '세계 창조도시를 가다'의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 자문위원은 창조도시 선정 절차부터 창조도시 방문 전후 조언 등 시리즈 전 분야에 대해 평가하게 된다.

또 선정된 창조도시에 대한 시민의 삶을 밀착취재하기 위해 현지 한인회, 유학생 등의 일상은 물론 행정기관의 독특한 시스템도 살펴본다. 각 도시별로 5차례에 걸쳐 ▲도시 일반 현황 ▲도시민의 일상 ▲민·관의 소통 시스템 ▲독특한 도시문화와 매력 ▲창조도시의 명암 등을 다룰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d@kwangju.co.kr

http://www.hyundae-hosp.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80404-중-7256호

謹賀新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최선을 다하는 진료와 친절한 서비스로 보답하겠습니다.

<p>진료과목</p> <p>내과 / 외과 / 정형외과 / 신경외과 소아청소년과 / 신경과 / 치과 영상의학과 / 마취통증의학과 응급의학과 / 진단검사의학과</p>	<p>특수클리닉</p> <p>유방암클리닉 / 척추클리닉 관절클리닉 / 고관절클리닉 당뇨클리닉 / 수면내시경클리닉</p>	<p>■ 당뇨교실 : 매월 격주 목요일 오후 3시</p> <p>■ 문화센터 :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 오후 3시</p> <p>■ 평 일 : 오전 09:00 ~ 오후 6:00</p> <p>■ 토요일 : 오전 09:00 ~ 오후 1:00</p> <p>■ 응급실 : 24시간 응급의학과 전문의 상주</p>
---	---	--

아름다운병원, 행복한 사람들 -

Hyundae **광주현대병원**

대표전화: 062-570-0114 응급실 062-570-0119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동 오치초교 앞 (북부경찰서와 용봉IC 사이)